

저항의 언어적 구현: 『Phantom Pain Wings』에 나타난 돈미 최의 행동주의 번역 양상 고찰

정하연(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행동하는 번역가 돈미 최

세계문학(world literature, Weltliteratur)은 19세기 독일의 문호 괴테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지만 20세기 북미에서는 유럽의 정전(canon)을 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작품이 기원한 문화 밖에서 유통되고 읽히는 모든 문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Galasso, 2023, p. 6). 문학의 문화적 이동을 일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번역인데, 영미권을 대표하는 미국 출판시장의 경우 번역문학은 21세기에 들어서도 1년 동안 출간되는 전체 도서의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문화운동으로서 번역을 표방하는 미국의 단체 아웃트랜스포(Outranspo)는 “모든 번역은 행동주의의 실천”이라고 역설한다 (Galvin, 2023, p. 1570).

지난 이십여년 동안 미국의 번역가이자 시인 돈미 최(Don Mee Choi)는 한국 생존 대표시인 중 한 명인 김혜순의 시를 미국 문단에 꾸준히 소개해오면서 “21세기 들어 한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번역가 파트너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Fulton, 2015, p. 456), 2023년 김혜순의 『날개환상통』 영역본 『Phantom Pain Wings』로 미국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을 한국문학 최초 수상하여 김혜순이 명

실공히 현재 세계문학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고 인정받고 있는 한국 시인임을 확인시켰다.

이 글의 출발점은 돈미 최가 번역가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자신의 작업을 반(反)신식민주의적(anti-neocolonial), 즉, 신식민주의에 저항하는 행위로 규정하는(Choi, 2020, p. 3) 대표적인 행동주의 번역가(activist translator)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돈미 최는 이러한 철학을 번역에 어떻게 반영하고 실천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하여 우선 번역가 연구(translator studies)의 관점에서 돈미 최의 생애 그리고 번역가이자 시인으로서의 궤적을 통하여 행동주의적 정체성의 사회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살핀 후, 이러한 관점이 번역에서 어떻게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구현되는지 그 방법론을 『Phantom Pain Wings』의 번역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번역가 연구

최근 부상하고 있는 번역가 연구는 번역학을 “인간화(humanize)”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의 일환으로, “번역가들의 여러 개인적 관점을 통하여 이제까지 이루어진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이해를 확인, 수정 혹은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Kaindl, 2021, p. 22). 번역가 개인의 생애와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역자 노트 등의 곁텍스트(paratext)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번역작품을 고찰하는 번역가 연구는 21세기 들어 문학번역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Literary Translator Studies』에 16편의 유럽어권 중심 연구가 묶여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을 엮어낸 클라우스 카인들(Klaus Kaindl, 2021)은 번역가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정체성(identity), 역할(role), 개성(personality), 주체성(agency) 그리고 텔로스(telos), 즉, 번역을 수행함에 있어 번역자 개인이 갖는 목표, 등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p. 18-22).

국내의 번역가 연구로는 김옥동이 저서 『근대의 세 번역가(2010)』에서

독립운동가 서재필 그리고 문인 최남선과 김억의 근대 변혁기의 번역가로서의 역할과 성취를 정리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근현대문학이 형성된 시기의 한국문학사적 정리의 일환으로 김억의 시 번역관 연구를 번역 텍스트 및 결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조재룡(2017)과 구인모(2018, 2020)가 수행한 바 있고, 하재연(2014)은 1920년대 김억과 양주동이 일간지를 무대로 펼친 번역론 논쟁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번역가의 텔로스 중 행동주의는 불평등, 인종주의, 성별주의, 군사주의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행동방식을 일컫는 지성적 행동주의(intellectual activism, Collins, 2013. p. ix)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번역의 장에서 불평등과 지배권력에의 저항을 실천하는 운동가들을 행동주의 번역가(activist translator)로 규명하는 시각이 최근 자리 잡고 있다(Galvin, 2023, p. 1566). 터키와 중국에서 성소수자의 탄압과 검열에 번역가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이어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번역가들을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텍스트를 다루는 “복제자(reproducers)”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식과 인식의 생산과 배포를 담당하는 지성적 행동주의의 중심축으로 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Duraner, 2021, p. 310).

국내에서 번역가의 텔로스와 철학이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핀 연구로 조재룡(2014)이 김남주 시인의 네루다, 브레히트 등의 시 번역에 나타난 투쟁성과 정치성의 관철 과정을 면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행동주의 번역 관련하여서는 홍승연(2019)이 국내 페미니스트 번역가가 텍스트 선정, 메타텍스트 활용, 그리고 용어 선택 등을 포함한 본문 번역에 있어서 행동가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피었다.

2.2 시 번역의 방법론

시 번역이 소설을 비롯한 산문 번역과 가장 우선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점은 그 형식미에 있을 것이며 시의 형식을 번역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론의 출발점은 버튼 라펠(Burton Raffel, 1988)의 비교 율격(comparative prosody)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비교 율격이란 출발어의 율격 체계를 도착어에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착어의 율격 체계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찾아 대체 가능성을 일컫는다. 즉 복제가 아닌 “근접하기(approximation)”가 율격

뿐 아니라 시 번역의 모든 측면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의미이다(p. 83). 라펠의 방법론을 더 본격적으로 이론화한 개념이 제임스 언더힐(James W. Underhill, 2016)의 비교 운문화(comparative versification)로, 시 번역의 과정에서 운율적 요소를 비롯하여 행과 연의 구성 등 모든 운문화 장치를 “도착어의 유사한 장치로 대체하거나 변주하여 원시의 효과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일컫는다(p. 280).

비교 운문화 개념을 영미시의 한국어 번역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정하연(2020)의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정형시 번역본 비교 분석을 통한 영한 시 번역 방법론 고찰이 있으며, 정하연(2023)의 시인이자 번역가 김정환의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 시 번역 연구는 번역 텍스트 검토를 통한 시 번역 방법론 고찰인 동시에 김정환의 이력과 결텍스트 검토를 수행한 번역가 연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룰 한영 시 번역의 방법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번역가 안선재(An Seonjae, 2002)가 자신의 방대한 번역 경험을 토대로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어휘(lexicon)와 문자체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번역의 체문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정은귀(2009)는 자신의 이성복 시 번역 과정 중 의미 해석의 난제를 되짚으며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기준을 재고한 바 있다. 또한 한국문학 연구자인 지은 카이어(Jieun Kiaer, 2022)는 한국어 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마주하는 난제를 두 언어의 음운론적 차이, 존재를 비롯한 레지스터 구현 방식의 차이 등으로 정리하였다(p. 12).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한영 시 번역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개별 미학적 요소 및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진서(2007a, 2007b, 2008)는 세 편의 논문에서 각각 은유, 의성어·의태어, 문화소 등의 번역 양상을 서정주, 구상, 천상병 등 여러 시인의 번역 시 발췌 텍스트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인지언어학 이론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우형숙(2004) 역시 서정주, 천상병 등의 번역시 발췌본을 토대로 연어(連語)의 의미체계를 고찰하였고, 박영란(2022)은 서정주 시의 여러 영어 번역본을 리듬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심선향(2021)은 김이든 시의 영역본에서 감정 번역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인지모형을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신상범(2020)과 이재성(2022)은 윤동주 시의 여러 영역본을 각각 미학적 가치와 시적 효과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비교하여 미학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 신상범(2021)은 김소월 시 번역본을 시어 중심으로 비교한 바 있다. 한미애(2020)는 신경림 시의 여러 번역본에서 시제와 상(aspect)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한미애와 조의연(2020)은 한용운 시 한 편의 다양한 영역본에 직시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필 김혜순 시 영역본 연구로, 시의 형태와 편집 등 시각적 효과가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핀 연구가 있다(이상빈, 2022).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의 개별 요소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번역 분석에 시 번역 방법론 관련 이론이 아닌 인지언어학 및 포괄적인 번역학 이론을 적용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인다.

3. 돈미 최: 운동가, 번역가 그리고 시인

3.1 이주와 분열의 언어

돈미 최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12살이 되던 해 홍콩으로 이주 후 미술 전공생으로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여 정착하기에 이른다. 중군기자였던 아버지가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 겪은 사회적 탄압,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의 영어 습득, 이에 이은 미국으로의 이주는 번역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돈미 최에게 중요한 개념인 “지정학적 시학(geopolitical poetics, 정은귀, 2021, p. 56)”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이민 간 뒤 오랫동안 나의 언어가 점점 사라져서 오랫동안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썼는데 김혜순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 목소리를 찾아 나갔다 (...) 내 혀가 떠돌이, 망명자의 혀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혀로 글을 쓰게 됐다. 번역은 내가 언어를 되찾는 작업”이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김은형, 2022).

번역가 개인의 생애를 살피는 작업은 그동안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번역학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번역 텍스트의 선정과 번역 전략뿐 아니라 번역 작품의 편집, 출판, 평가 모두 번역가 개인 그리고 그가 속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깊기에 번역가 연구에서 개인의 삶의

쾌적은 번역 텍스트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Eberharter, 2021, p. 86). 돈미 최의 경우 이주와 이에 따른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 이 번역가로서, 또 시인으로서의 작업에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엮여있기에 생애와 이력을 살피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돈미 최의 번역가로서 첫 출발은 국제단체인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 네트워크(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과 군 폭력 및 성 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통역과 번역을 맡았고, 같은 시기 한국 여성시를 처음 접하면서 문화집단 <또 하나의 문화>에서 활동 중이던 김혜순 시인의 작품들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해석은 정치적 행동이며 (...) 한국 여성시 번역 역시 정치적 행동”이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한다(Choi, 2020, p. 18).

돈미 최가 번역가로서 김혜순 시인의 작품에만 집중해온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2005년 시선집 『When the Plug Gets Unplugged(플러그가 빠지면)』의 소책자(chapbook) 출간을 시작으로 다수의 문예지에 번역시를 두고 게재한 노력 끝에, 2008년 시 전문 독립출판사 액션 북스(Actions Books)에서 본격적인 단행본 시집 출간을 시작으로 4권의 김혜순 시집을 연이어 출간하였으며, 2018년 『Autobiography of Death(죽음의 자서전)』부터는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순수문학 출판사 뉴디렉션즈(New Directions)에서 출간을 하여 2019년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Griffin Poetry Prize), 2021년 스웨덴의 시카다상(Cikada Prize)에 이어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은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 상이 아닌,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출간된 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수상한 다른 상들과 차별화된다. 즉, 미국 문단의 주요 문학상 중 유일하게 미국 외 국적의 작가 작품 및 외국어로 쓰인 작품도 수상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영미권에서 외국 문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것이다.

이러한 성취는 돈미 최 자신의 시 창작 활동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김혜순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를 찾아 시를 쓰기 시작한 돈미 최는 2010년 첫 시집을 발표한 후 2020년 세 번째 시집 『DMZ Colony(DMZ 식민지)』로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전미도서상(National Book Award)을 수상한 데 이어 구겐하임(Guggenheim), 맥아더(MacArthur) 등의 주

요 문화예술 재단에서 창작 지원을 받아 미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또한 가장 문제적인 시인 중 한 명으로 부상하였다.

미국 문단에서의 이러한 성취에 비하여 국내에는 시인 돈미 최를 소개하는 시도는 미미하여, 시집이 국문 번역본으로 출간된 바 없고, 연구 역시 단 두 편으로,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의 일부로 소개한 논문(정은귀, 2021) 그리고 여성주의 재미 한국시인 중 한 명으로 소개한 논문이(Grotjohn, 2019) 있다.

시인으로서 돈미 최의 주된 관심사는 “군사주의, 식민주의 패습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세계질서에서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에서 긴밀하게 좌우하는 미국의 현실과 정치”로(정은귀, 2021, p. 56), 형식 면에서는 영어와 한글, 운문과 산문, 사진, 그림, 메모 등이 뒤섞인 난해하고 실험적인 미학을 추구한다. 특히, 자신이 이주하며 습득한 영어를 신식민지적 통제와 연결하여 “영어의 타락(corruption)”을 추구하는데(Grotjohn, 2019, p. 458), 그 과정에서 영어의 문법을 해체하여 “서투른 영어(bad English)로 시를 써내 (...) 전쟁과 역사의 폭력에 의해 삶과 언어가 강요된 개인을 표현”한다(Kim, D, 2022, p. 668).

이러한 이유로 평단에서는 번역가로서 돈미 최는 이해를 추구하는 반면, 시인으로서 돈미 최는 이해를 거부하는 분류 불가한 작가라고 평한다(Shieh, 2023, p. 7). 역설적이게도, 번역가인 시인이 번역이 불가능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혜순 시인은 돈미 최가 “시인으로서도 번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시뿐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번역하는 사람(김은형, 2022)”이라고 말한다. 또한 돈미 최는 김혜순의 시에 대하여 “번역의 시(poetry of translation)”라고 표현하는데(Goransson, 2016, p. 49), 이는 돈미 최의 번역이 김혜순이 시를 쓰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그 곳은 어두운 억압의 공간인 동시에 자아의 재정립 그리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시인이자 평론가 요하네스 괴란슨(Johannes Göransson)은 해석한다(2016, p. 49). 이렇듯 해외에서 돈미 최의 번역을 다루는 연구와 비평은 다양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데, 해외 비평의 경우 김혜순의 국문 원시는 본격적인 검토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도착어 결과물에 제한된 검토이자 고찰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3.2 행동주의 번역가의 과제

돈미 최는 에세이를 통하여 번역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번역은 즐길 수 있는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행위가 절대 아니다 (…) 나에게 번역의 목적은 나라는 개인의 성장 혹은 지적 수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화 교류의 의미도 아니다. 교류란 어떤 형태로든 동등한 위치를 전제로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등하지 않다. 나는 초국가적인 동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다.”(2014, p. 10)

이런 의미에서 돈미 최는 미학적 텔로스보다 이데올로기적 텔로스가 우선하는 행동주의 번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반(反)신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행동주의 번역가로 자신을 규정한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번역가의 과제(Die Aufgabe des Übersetzers)」에서 제시한 “번역은 하나의 형식”이라는 선언을(2008, p. 122) 돈미 최는 자신의 관점에서 변주하여 “번역은 반(反)신식민주의적 형식(anti-neocolonial mode)”이라고 역설한다(Choi, 2020, p. 3). 자신이 번역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의도는 신식민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김혜순의 시가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번역한다고 밝히고 있다(Choi, 2014, p. 10).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이기에 돈미 최에게 영어는 식민주의적 언어이고, 자신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행위는 탈식민주의적 노력인 것이다.

김혜순의 시가 앞서 해외에 소개된 고은과 신경림의 역사적 감정과 상흔의 노래와 차별화되는 “현대적 감수성과 분열된 문장”의 페미니즘 시라는 점(권성훈, 2022, p. 29) 역시 돈미 최의 행동주의 번역을 특징짓는다. 국문학자 정명교(2013)는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논하면서 “여성성은 한국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신비화되는 과정을 밟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온 정황적 특수성에서 김혜순의 시는 피어났기에 세계문학 속에서 그 문학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였고(p. 6), 미국의 여성주의 학자 루스 윌리엄즈(Ruth Williams, 2010)는 김혜순의 시 세계를 “초현실적 그로테스크(surreal grotesque)”로 성격지으며(p. 395)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비현실적, 초현실적, 나아가 환상적이기까지 한 새로운 언어로 이끌어 지배문화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본다.

김혜순은 이러한 자신만의 언어로 만든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돈미 최(2016)는 “김혜순의 시공화국 안에서 나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번역한다”라고(p. 75)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철학을 토대로 형성된 돈미 최의 행동주의 번역 관점(perspective)은 그렇다면 번역이라는 실질적인 작업에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고 수행되는가를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4. 행동주의 번역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Phantom Pain Wings』에 나타난 번역전략 살피기

『날개환상통』은 2019년 출간된 김혜순 시인의 열 세번째 시집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비롯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작별을 “새하다”라는 “억압적인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 급진적 수행문”을(이광호, 2019, p. 298) 통하여 마주하며 새롭게 풀어낸다. 1부 「사랑하는 작별」, 2부 「나는 숲을 뺏족하게 깎아서 편지를 쓴다」, 3부 「작별의 공동체」, 4부 「여자들은 왜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5부 「리듬의 얼굴」로 구성된 60여편의 시가 수록되었으며, 이 중 한 편의 장시로 이루어진 5부 「리듬의 얼굴」은 2018년 돈미 최의 번역으로 출간된 『죽음의 자서전』의 영역본 『Autobiography of Death』에 앞서 소개되어, 『Phantom Pain Wings』는 2023년 총 4부로 출간되었다.

돈미 최는 2020년 팬데믹 상황 중 격리생활 속에서 『날개환상통』의 번역을 진행하며 일지를 남겨 자신의 작업, 김혜순과의 메일 교신, 일상 생활, 꿈, 연상, 이미지 등을 기록하였고, 이를 『Phantom Pain Wings』에 부록 형태로 덧붙여 출간하였다. 돈미 최는 인터뷰, 강연 및 에세이에서 자신의 번역을 논할 때 앞서 소개된 자신의 번역철학과 관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반면, 번역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설명한 바가 거의 없기에 이 번역일지는 돈미 최의 실질적 번역전략을 살피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영어권에서 번역일기를 비롯하여 역자 후기, 역자 노트 등의 결텍스트는 과거 번역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게재된 경우에도 원작을 소개하는 데에 그쳤던 반면, 현재 늘어나는 추세이며(Ben-Ari, 2021, p. 157), 그 내용

역시 원작 소개 뿐 아니라, 돈미 최와 같이 번역 과정을 기술하거나, 번역 철학 혹은 이데올로기를 피력하는, 번역가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Ben-Ari, 2021, p. 159) 번역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장에서는 『Phantom Pain Wings』 번역일지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토대로 번역시에서 관찰된 번역가의 선택과 전략을 상세하게 검토, 기술하여 돈미 최의 행동주의 번역가로서의 철학 그리고 번역가로서의 구현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번역에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기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검토는 행동주의 번역의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지지하고자 하는 처방적(prescriptive) 연구보다는 실증적인 검토를 토대로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4.1 운율적 요소를 비롯한 시적 장치의 반영

돈미 최의 『Phantom Pain Wings』 번역일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원시에 사용된 다양한 운율적 효과를 영어로 어떻게 반영해낼지에 대한 고민이다.

수록시 중 한 편인 「우체국 여자」의 세 번째 연은 한국어의 다양한 조사를 4음절로 이어 붙인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미는 없지만 한국 운문의 기본 음절율(syllabic meter) 중 하나인 4.4.4조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을 돈미 최의 번역본 「Postwoman」과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ST	TT
은는이가	isareambe
을를에의	inonatot
와과만도	andwithonlytoo

한국어의 조사를 영어로 의미가 유사한 be 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음절수 역시 한국어의 음절율과 유사하게 맞추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돈미 최(2023)는 영어에는 조사가 없기에 “정확

한 등가성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지만 (...) 어느 정도는 근사(approximate)” 한 소사(小辭, particle)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p. 175).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라펠의 “근접하기” 전략을 통하여 비교 운문화를 시도하였다는 의미인데, 돈미 최의 비교 운문화 전략은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파격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위와 유사한 예를 하나 더 보면, 시 「뽕족한 글씨체」 14연의 “숲이여 나의 숲새야 나의 수괴즙이여 나의 송배여”에서 두드러지는 ‘스’를 사용한 두운(alliteration)을 번역에서 하나의 영어 자음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숲”을 의미하는 영단어 “forest”를 어근 삼아(Choi, 2023, p. 176) “Forest, my forestbird, my forestSufism, my forestdeity”로 풍성하게 구현해냈다.

돈미 최는 비교 운문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독자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운율적 요소를 번역하고자 오래전부터 동음 번역(homophonic translation) 전략을 김혜순 시 번역에 도입해왔고, 『Phantom Pain Wings』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예로 아래 시 「쌍시옷 쌍시옷」의 번역본 「Double S / Double S」에 나오는 쌍시옷 받침의 어미를 번역한 방식을 들 수 있다.

<예시 2>

ST

새들은 발바닥에 쌍시옷이 두 개 달렸다

(한강의 다리 난간 위 새 한 마리

왼발에 미래

오른발에 과거

엮, 겹, 엮, 겹, 엮, 겹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가고

내 일기엔 쌍시옷이 쌍이다)

TT

Birds have double s dangling from the bottom of their feet

(Bird on the railing of the bridge of Han River

Future on its left foot

Past on its right foot

Less, ness, less, ness, less, ness

Bird waddles by swaying its butt

and ss pile up in my diary)

위의 밑줄친 부분을 보면 원문의 “쌍시옷” 혹은 받침 “ㅅ”을 영어 중 소리가 가장 가까운 자음 “s”로(Choi, 2023, p. 170) 옮겼을 뿐 아니라, 쌍시옷 받침의 어미 “었”과 “겠”이 여섯 음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소리가 유사한 1음절 접미사 “less”와 “ness”로 번역하고 있다. 의미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소리와 율격을 유사한 소리로 번역한 동음 번역의 예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얻은 것은 비교문문화의 효과인 반면, 원문에서 쌍시옷이 새의 발 모양을 연상시키면서 과거형 어미 “었”과 “겠”과 함께 새의 걸음걸이를 과거와 미래의 진퇴 혹은 교차로 다양한 의미 생산해내는 의도를 잃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돈미 최의 과감한 동음 번역 전략에는 원문의 큰 훼손을 동반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아래 시 「폭설주의보」의 번역본 「A Blizzard Warning」에서는 앞의 시에서 사용되었던 쌍시옷 받침이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된다.

<예시 3>

ST

나보다 먼저 떠나갔던 글자의 받침들이 떨어진다

쌍쌍이 손잡고 눈발 사이 뛰어가는 바짓가랑이들처럼 떨어진다.

TT

All the ~ㅅ word endings that have left before me are falling

They fall down like trousers, holding hands, in pairs, running through the blizzard

ㅅㅅ ㅅㅅ ㅅㅅ

<예시 4>

ST	TT
헤어 <u>졌</u>	Part <u>~ed</u>
죽 <u>었</u>	Di <u>~ed</u>
잊 <u>었</u>	Forgott <u>~ed</u>

첫 번째 예는 이 시의 5연으로, 원문에는 직접적으로 받침 “ㅈ”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시에는 한글로 “ㅈ”이 직접 등장한다. 돈미 최(2023)는 이 시 전반에서 받침 “ㅈ”이 “시각적 언어유희(visual puns),” 즉 바짓가랑이, 쌍쌍이 잡은 손, 날개, 짝 등을 시각화한 문양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p. 179), 앞의 예시에서는 원문에 있음에도 번역문에는 영어로 표기한 쌍시옷을 여기에서는 원문에 없음에도 번역시에 한글로 직접 등장시킨 것이다.

반면, 그 다음 예인 6연에서는 원문에 직접 등장하는 받침 “ㅈ”을 영어로 의미와 형태를 반영하여 과거시제 접미사 “~ed”로 번역하고 있는데, 돈미 최는 번역일지에서 이는 김혜순 시인이 제안한 번역 방식이라고 밝히며, 이는 아마 “완벽한 새언어(bird language) 번역 공식”일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p. 179). 더 나아가 마지막 행의 “Forgott ~ed”에서는 문법을 깨뜨리면서 “~ed”의 소리 요소를 유지하여, 영어의 균열을 통해 “새언어”의 번역, 즉 “새하기”를 수행하는 과감함을 볼 수 있다.

위의 예시 3에서 살핀 동음 번역은 돈미 최가 자신의 시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경계를 흐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으로, 시인이자 평론가 조이엘 맥스 위니(Joyelle McSweeney, 2015)는 돈미 최가 이 기법을 통하여 “식민주의 권력이 언어정치(language politics)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화 말살에 소리를 입혀 들려준다”고 그 의도와 효과를 설명한다(p. 73). 즉,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불균질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도착어를 더욱 비틀고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주의 번역철학이 실천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hantom Pain Wings』에서 관찰되는 동음 번역의 예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기 위한 아래 인용은 시 「새들의 영결식」과 번역본 「Birds' Funeral」의 세 번째 연이다.

<예시 5>

ST

조사는 아직도 계속된다

불우한 어린 시절은 셋 셋 셋

작가의 불행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작가 특유의 셋 셋 셋

내 목구멍에서 피가 가르릉거리는 셋 셋 셋

그 피가 망가진 텔레비전처럼 끓는 셋 셋 셋

TT

but the eulogy is still going on

My unfortunate childhood says, Shht shht shht

The author's unique shht shht shht turns hardship into something positive

Blood gurgles in my throat—shht shht shht

Blood boils like a broken TV—shht shht shht

조용히 하라는 의미의 “셋”은 영어에서 “shhh”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돈미 최(2023)는 이를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음역한 것에 가깝게 “shht”으로
동음 번역하여 “shit”을 연상시키는 언어유희 효과를 주었다고 설명한다(p.
172).

「어느 작은 시」의 번역본 「Little Poem」에서도 같은 전략에 의해 유사한 소
리와 단어가 변주되어 번역에 사용된다. 여기서의 원문은 동사 “씻다”를 변주
한 “씻 씻 씻”인데 이를 위의 시에서 사용된 표기와 유사한, 그러나 더 노골
적인 “shhit shhit shhit”으로 동음 번역하였다.

<예시 6>

ST

씻다만 있고 씻다 샅다 슯다 슯다 췌다 췌다는 없으니 그저 나는 작은 이야기
로 무엇을 씻는지도 모르면서 씻 씻 씻 하는 정도야

TT

There's only the word clean but no kleen, keen, cleat, cleek, cloot, clat, clot, so I

have no idea what I'm cleaning with the little story—only shhit shhit shhit.

돈미 최(2023)는 자신의 이러한 선택이 “‘씻다’의 의미가 ‘shhit’으로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시 전반의 의미 그리고 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한다(p. 174). 동음 번역의 전복성 혹은 불온성이 시의 주제적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영어의 훼손

영어로 출간된 김혜순 시집들에 대하여 평론가들이 주목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돈미 최가 한국어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 문법을 균열시키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러한 돈미 최의 번역은 “언어가 주는 당혹스러움을 훌륭하게 구현해낸다”고 평가한다(You, 2015, p. 43). 이는 앞서 돈미 최의 시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영어의 타락(corruption)” 혹은 의도적으로 서투른 영어를 사용하는 정치적 번역 전략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인용은 시 「새의 시집」 과 번역본 『Bird's Poetry Book』 5, 6연의 일부로, 번역에서 한국어의 어순을 영어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하이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7>

ST

밤의 꼭지를 입에 물고 송곳같이 뽀족한

에베레스트를 넘는 순서

TT

Bird-carrying-the-night's-nipple

over-the-pointed-as-an-awl-Mount-Everest sequence

<예시 8>

ST

그 작은 새가

이불을 박차고 내 몸을 박차고

TT

The tiny bird's

kicks-off-the-blanket-kicks-my-body-

흙을 박차고 나가는 순서

kicks-the-dirt-and-exits sequence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폈듯이 한국어 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마주하는 대표적인 난제로 두 언어의 어순 차이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행 구성과 강조점의 위치를 번역에 반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준다(Kiaer, 2022, p. 12). 돈미 최는 위의 시에서 “-는 순서”라는 수식 구조의 어순을 원문의 행 구성 그대로 영어로 구현하기 위하여 하이픈으로 길고 가파른 호흡의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영어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매끄럽지 못한 통사구조이지만, 원시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불안의 인물화』의 번역본 『Portrait of Fear』에서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좀 더 과격적인 균열을 감내한다.

<예시 9>

ST

머리 위에 핀 꽃이 뜨거운 언니는

이파리만 만져도 손이 텔 정도로 뜨거운 언니는

가슴 위의 사과를 금속성이라서 더 뜨거운 언니는

사과 속 앞니 두 개가 무작정 시린 언니는

TT

Flower blossoming in her hair is scorching hot—Sister isLeaves are scalding hot even at the slightest touch—Sister isMetallic apple above her breasts is even hotter—Sister isTwo front teeth that bite into the apple are shockingly cold—Sister is

위의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 원문은 형용사절 뒤에 명사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통사구조인 반면, 번역문은 수식을 받는 명사의 위치가 영어의 자연스러운 통사적 위치인 절 앞이 아닌 뒤에 놓이고 수식절 안에서의 통사구조도 매우 분절적이다. 돈미 최(2023)는 번역일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행의 끝에 반복적으로 주어 “언니는”이 위치하는 한국어 원문의 통사구조를 복제

(replicate)하기 위하여 대쉬를 사용해 “—Sister is”를 행 끝에 두는, 분절된 도치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p. 172).

이렇듯 과격하게 도착어인 영어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은 한국어에서 생략된 주어를 번역하는 경우에도 관찰된다. 아래 인용은 「비탄 기타」와 번역본 「Grief Guitar (Etcetera)」의 1, 2연과 7, 8연으로, 원문에서 주어, 즉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예시 10>

ST

지하 탄광을 위문하러 온 <백조의 호수> 무용단
소름 돋은 살을 파고드는 투명 어깨끈을 본 순간
우리의 몸을 파고드는 우주에서 온 통증 같은 것

녹슨 귀걸이를 흔들며 서로의 무릎이 닿게 합니다

TT

The Swan Lake dance troupe arrives to console a coal mine
The moment I + guitar see the clear shoulder straps cutting into the dancers' flesh
covered in goosebumps
intense pain rips through us as if it came from outer space

I + guitar (dancers) shake our rusted earrings, our knees touching

<예시 11>

ST

끌어안은 두 몸이 물에 녹는 알약처럼 퍼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봤습니까?

TT

I + guitar's (dancers') entwined bodies dissolve like pills in water

I + guitar speaks out:

How far have you gone down?

돈미 최(2023)는 번역일지에서 밝히길, 1연의 “우리,” 2연의 “서로” 그리고 7연의 “두 몸”이 누구를 칭하는지, 즉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지 않고 암시만 되어있는 점에 대하여 김혜순에게 설명을 청하여, “우리”는 1인칭 화자와 “너”인 기타이며, 더 나아가 “우리”에는 공연 중인 무용수들도 포함하려는 의도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p. 171). 이 시에서 시인은 “한국의 기타(즉 시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는 해설이었다. 이러한 원작자의 설명과 해설을 번역에 어떻게 반영하고 구현하는가 번역가의 몫일텐데, 돈미 최는 1인칭 화자, 기타 그리고 뒤이어 무용수까지 모두 “I + guitar (dancers)”로 두드러지게 명시(spell out)하는 선택을 한다. 한국어로 “기타”는 “guitar”가 음역된 외래어인 동시에 “etcetera”을 의미하는 “기타”의 동음이의어이기도 한 점에 착안하여 이를 모두 드러내는 선택을 하였고, 제목에도 괄호로 “Etcetera”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돈미 최의 선택은 우선적으로 원문의 모호성을 명확화하는 전략에 기반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명확화(clarification)는 번역가이자 이론가인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 2009)이 문학번역에서 목격되는 미학적 부정확성에 기반한 “왜곡(deformation)”이라고 정리한 12가지 과정 중 하나로(p. 282), 도착어 독자 중심으로 원문을 풀어쓰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확화는 운문인 시를 해설적으로 산문화시키는 경향에 기반하여, 이 시의 경우 8연에 이르러서는 원문에 있지 않은 “I + guitar speaks out:”이라는 설명적 문구를 별도의 행을 추가하여 넣고 있다. 동시에 추가되는 해설적 문구에 영어 문장 표기의 관습에서 벗어난 기호 “+”를 사용하므로써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명확화를 넘어 도착어에 균열을 일으키는 구현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해설적 명확화와 도착어의 균열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지닌 전략을 하나의 상황에 뒤섞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시 「애야 네 몸엔 빨대를 꽂을 데가 많구나」의 번역본 「Girl, Your Body Has So Many Holes for Straws」에서도 위와 유사한 전략이 관찰된다.

<예시 12>

ST

검은건반 흰건반이 마구 섞이는 저녁
장님이 해를 바라볼 때 같은 박명의 시간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와 이륙을 감행해서

흰 수염의 피아노 수선소 굴뚝까지

얘야 이 우주에 아직 멈추지 않은 음악 같은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니

TT

At night black-and-white keyboards mic wildly
Twilight hour like when the blind stare at the sun
I + bird (tied up with a piano string) + music escape from time

and go up the chimney of white beard's piano repair shop

Girl, how wonderful that there's music playing nonstop in the universe!
says white beard

위는 해당 시의 1, 2, 3연으로 누구의 시점에서 시가 전개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주어가 생략된 도입부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주어 생략이 자연스러운 반면,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통사구조에서 주어를 명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어, 즉 화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주어진다. 이에 대해 김혜순은 이 시에서 “나, 새, 음악”이 모두 화자로, 입을 모아 함께(in unison)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를 바란다고 답하며, 구체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될 형태(“I + bird (tied up with a piano string) + music”)까지 제시하였다고 돈미 최는 번역일지에 기록하고 있다(2023, p. 171). 원시는 함축적이고 독자가 개입할 자리를 준다면, 번역시는 시인과 번역자가 공히 해설을 선택한 대신, 영어의 관습에 균열을 주어 낯설음을 취하는 이중 전략을 이 시에서 역시 취하고 있다.

영어의 훼손과 연결하여 김혜순 시에 인용된 서구의 레퍼런스가 번역에서

는 언어적, 문화적으로 균열되어 반영되는 예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돈미 최는 번역일지에서 「합창대」에 인용된 베토벤 합창교향곡 속 프리드리히 쉐러(Friedrich Schiller)의 시 「환희의 송가」 중 한 구절 “여자들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남자들아! 환희의 송가를 다 같이 부르자!”를 독일어 원문 혹은 독일 번역본에 기대지 않고 국문을 직접 영어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2023, p. 177). 돈미 최의 한영번역(“Men who’ve won the warmth and love of women! /Let’s sing ‘Ode to Joy’ together!”)과 쉐러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독일 번역본(“Who a lovely wife attaineth, Join us in his jubilee !”))을 비교하면, 돈미 최의 번역은 원시의 운율적 운문성을 산문화시킨 동시에, 따옴표를 사용하여 자기지시적(self-referential)인 관점을 취하며 시대적, 문화적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의 시 「바퀴자국(Omieres)」 중 한 연이 시 제목으로 사용된 「수레의 킁킁한 덮개 아래/흑단으로 만든 화려한 관들이/검푸른 털로 빛나는 장대한 암말들에게 바삐 끌려가고 있다」 역시 붙어 원본 혹은 불영 번역본에 기대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으며(“Beneath the dark cover of the cart/splendid coffins made of ebony / are swiftly dragged by the strong mares / with shiny dark-blue hair.”) 국문본 『날개 환상통』에는 각주로 이 제목이 랭보의 시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영역본에는 해당 시의 지면에 별도의 설명이 없고 번역일지에만 원전을 언급하고 있다(Choi, 2023, p. 181). 일지에서 돈미 최는 본인이 취한 번역 전략을 기술만 하고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번역자의 태도는, 자신에게 원전은 김혜순의 시이며, 그 안에서 인용된 서구문학이 지닌 문화적 헤게모니를 자신의 번역본에서는 비켜 가고자 한다는 의도라고 보인다.

위의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발어와 도착어의 위계질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돈미 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피란슨(2016)은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이국화를 위한 전략으로 균열된 통사구조(fragmented syntax)를 고집하듯이 돈미 최가 “김혜순의 한국어가 지닌 요소들을 활용하여 영어를 왜곡(deform)함으로써 시인들에게 경계를 자유로이 넘

1) Friedrich Schiller. “Ode to Joy,” translated by William F. Wertz,
https://archive.schillerinstitute.com/transl/schiller_poem/ode_to_joy.pdf

나들자는 초청을 하고 있다”고 보며(p. 49) 김혜순과 돈미 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작업을 “초월적 순환(transgressive circulation)”이라고 규명한다(p. 44). 즉, 이는 함축성을 포함한 형식미보다 정치성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접근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정치적 해석의 직접적인 반영

『날개환상통』의 표제작 「날개환상통」은 이 시집 1부 네 번째 수록시로, “하이힐을 신은 새 한 마리 / 아스팔트 위를 울면서 간다”라는 매우 선명한 이미지의 1연으로 시작하여 3연에 “그들”이라는 불특정의 주체가 등장하여 “안 돼”라는 금지의 명령을 한다.

<예시 13>

ST

그들은 말했다

애도는 우리 것

너는 더러워서 안 돼

TT

Critics tell me,

Condolences are for us

You're too filthy for them

번역일지에서 돈미 최(2023)는 번역자로서 이 시의 화자/대상/목적어의 불특정성과 씨름하는 동시에, “이러한 객관성, 구체성의 결여가 모호성 그리고 명시성의 지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p. 170)” 효과 역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3연에서 “그들”을 “critics”로 번역했고, 김혜순에게 “그들”은 자신의 시 「돼지라서 괜찮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칭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번역에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김혜순은 2017년 해당 시가 수록된 시집 『피어라 돼지』로 광주 5.18 재단에서 수여하는 5.18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강한 비판론²⁾이 대두된 후 수상을 사양한 바 있고, 돈미 최는 이러한 배경을 번역일지에 상세히 밝히고 있어서 번역자의 선택이 정치적 발언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시인 자신은 “그들”로 칭한 주체를 번역자는 “비난하는 이들,” “평론가들,” “반대하는 이들” 등으로 읽힐 수 있는 구체적인

2) 반대의 이유는 김혜순 작품의 모더니즘 성향, 서정주 문학상 수상 경력, 돼지의 구제역 살처분을 인간 고통의 은유로 사용 등으로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대두되었다.

명사로 번역함으로써 특정 사건 그리고 특정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미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전략을 취한 것이다.

아래 예시는 「원피스 자랑」과 번역본 「Bragging About My Dress」로, 익숙한 속담을 연상케 하는 문장들이 등장한다.

<예시 14>

ST

원피스가 생각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원피스가 세 번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TT

The fact that a dress has no thoughts is a lie

The saying that when a dress cries three times the whole nation goes under is also a lie

<예시 15>

ST

원피스를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원피스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TT

The saying that you must beat your dress every three days is a lie

The saying that the plates break when three dresses get together is a lie

돈미 최(2023)는 번역일지에서 해당 속담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자신도 어릴 때부터 “여성이 다른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런 속담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다고 쓰고 있다(p. 181). 그런데 김혜순의 원문은 이들 속담을 변주하면서 모두 “말”이라고 칭하고, 또 이를 “거짓말”과 병치시키고 있는 반면, 돈미 최의 번역에는 “속담(saying)”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위의 두 시에서 관찰된 번역 전략과 반대 지점에 있는 예도 관찰되어

흥미롭다. 이 시집의 3부 「작별의 공동체(Community of Parting)」는 시인이 부모님의 죽음을 대면하고 애도하는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작별의 신체」와 번역본 「Body of Parting」의 1연 그리고 「부사, 날다」와 번역본 「Adverbs, Fly」의 9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16>

ST

어째서 아빠, 너는 입술이 파리하니?
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눈길이 흐릿하니?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니?

TT

Daddy, why are your lips pale?
Why are your eyes faint even when you're sitting right in front of me?
Why does it seem like you're moving further away even when you're sitting at the dining table?

<예시 17>

ST

아빠, 네가 죽은 시각은 11시.
내가 아빠, 너의 죽음을 예감한 시각은 새벽 4시.
꿈의 창밖으로 아빠!
새가 한 마리 스쳐 갔어.
그 새의 목은 심야 버스 운전사의 목덜미처럼 섬뜩하고 웬지 아빠, 너 같았지.

TT

Daddy, your time of death is 11.
Daddy, I had a premonition of your death at 4 in the morning.
I shouted, Daddy! out the window in my dream.
One bird flew by.
Bird's neck was creepy like the night bus driver's neck—somehow it was yours,
Daddy.

돈미 최(2023)는 번역일지에 「작별의 공동체」 연작시에서 아버지를 칭하는 데에 사용된 2인칭 대명사 “너”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절대로 아버지를 “너”라고 칭하지 않는 한국어의 사회적 관습을 설명하며 김혜순이 “한국어에서 가장 성역으로 여겨지는 예법을 깬 것”이라고 단언한다(p. 179).

그런데 번역에는 이러한 비존칭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핀 여러 전략과는 달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어에는 반말과 존대말이 한국어에서와 같이 동사 어미, 대명사 혹은 호칭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역(register)의 차이는 통사구조, 어휘, 어투 등의 조절을 통하여 엄연히 구분됨에도, 돈미 최의 번역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위의 밑줄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문에서 “너는,” “네가” “너” 등의 주어로 정면에 등장하는 2인칭 대명사가 번역문에서는 모두 소유격으로 반영되어 있어 “아빠”를 직접적으로 “너”로 칭하는 단호한 톤이 번역가가 의식하고 있는 효과에 비하여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약화되었다. “아빠”를 2인칭으로 정면대결한다는 점에서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의 1965년 시 “Daddy”를 소환해보면, 이 시는 첫 단어, 즉 첫 행의 주어로 “you”를 내세워(“You do not do, you do not do”) 도전적이고 단호한 톤을 어순과 주어 설정을 통해 통사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2004, p. 73). 즉, 김혜순 시에서 “너는,” “네가” “너” 등의 주어로 표출하는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반말의 톤과 매우 유사한 영어의 통사적 구현인 것이다. 영미 여성시에 이러한 도전적 선례가 있음에도 정작 돈미 최의 번역에는 “너”가 소유격으로 한걸음 물러서 있으며³⁾ 번역일지는 원문의 과격만을 언급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즉, 원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한 후에, 일부는 과감한 훼손을 불사하는 반면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분열적 양상에서 돈미 최의 다채롭고 실험적인 번역 전략의 맹점을 찾을 수 있다.

3) 더구나 실비아 플라스는 『날개환상통』의 수록시 중 “들것을 든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젠더 논의를 첫 행부터 직접적으로 드러낸 「들것」에 직접 등장한다. “들것에 실려 실비아 플라스는 계단을 다 내려왔다. 이제부터 더 이상 죽지 않아.”

돈미 최는 자신의 번역 그리고 시 창작의 일차적 테크닉은 “실패”라고 정의한 바 있다(Choi, 2012). 어린 시절 이주로 인하여 새로운 언어를 강요당하면서, 겉으로는 완벽한 습득을 위하여 이해되지 않는 언어를 무조건적으로 구사하지만 내면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난도질하며 저항하는 경험이 자신에게는 실패로 인식되었고, 이 경험이 자신의 번역과 시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미 최의 『Phantom Pain Wings』 번역일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원시에 사용된 다양한 운율적 효과를 영어로 어떻게 반영해 낼지에 대한 고민이다. 즉 인터뷰 등의 결텍스트에서 번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시한 점은 반(反)신식민주의의 실천이라고 했지만, 시 번역에서 형식미를 반영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비교 운문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두드러진 특징은 번역 전략의 선택이 영어의 체계모니에 대항하는 행동주의적인 근거에 주로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실험적인 번역전략을 분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혜순의 “새언어”가 일관적이고 균질적인 언어가 아니듯 번역 역시 한 편의 시 안에서 뒤엉킨 전략, 즉 실험정신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략의 분열성은 그만큼 다양하고 모순된 실험을 거침없이 시도하는 태도이며, 번역일지에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면서도 이를 옹호하기보다는 “이 역시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2023, p. 178). 이념적으로는 선명한 행동주의에 기인하여 번역을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언어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애도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돈미 최의 실패는 행동주의의 실패가 아닌 폴 리쾨르(Paul Ricoeur, 2006)가 애도라고 일컫는 “완벽한 번역에의 이상을 포기”하는(p. 84) 의미로 보인다. 돈미 최 스스로도 리쾨르를 인용하며 자신의 번역작업을 회상과 애도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olumbia University, 2023). 이주로 잃어버린 언어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인 동시에 “끝없이 이어지는 이별”인 것이다(Choi, 2008, p. 11).

동시에 이러한 번역자의 태도가 앞서 기술한 분열적 양상의 원인이라고 보인다. 즉, 번역자에게 과감한 실험은 정교함과 정확성의 희생을 수반하는 양날의 칼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번역 양상은 행동주의 번

역철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번역 전략으로 구분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돈미 최의 번역에 나타난 양상이 어떻게 행동주의 철학과 연결되는지에 제한되는 고찰이다.

5. 결론: 쌍둥이 언어의 구사를 위한 행동주의의 실천

“나의 출신지는 신식민주의적 형제 살해(fratricide)의 나라이다. 내가 온 곳은 둘(twoness)로서 존재한다. 내가 구사하는 말은 쌍둥이의 언어다”라고 돈미 최(2020)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소개한다(p. 1).

돈미 최가 번역하는 시인 김혜순은 자신의 언어를 이렇게 소개한다. “나는 매번 발명해야 한다, 언어를. 나에겐 선생님도, 선배도 없다. 나에게 모국어의 여성적 전범은 없다. 당연히 내 몸의 내재적, 파동적 원리에 따라 새로 발명한 언어가 뛰어날 수 있는 장(場)도 없다. 나는 늘 목격한다, 내가 발명한 언어들이 누구와도 악수하지 못한 채, 허공 중으로 사라지는 광경을.”(2002, p. 181)

그렇다면 번역은 이 두 시인의 언어와 작품 세계, 그리고 그 두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일 것이며, 맥스위니(2015)는 이들에게 “둘임(twoness)은 동일함이 아니라 불가분한 비동일성(nonidentity)”이며(p. 80), 김혜순의 언어를 돈미 최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이 두 시인의 작품 세계가 “전사(轉寫), 번역 그리고 교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피비우스 띠를 이루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비틀리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p. 66).

이 글에서 필자는 돈미 최의 김혜순 시 번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돈미 최의 행동주의 번역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번역을 정의하고 있는 “반(反)신식민주의 형식”이 지니는 의미를 번역가 연구의 접근법으로 살펴 피었다. 이를 토대로 돈미 최가 번역한 김혜순의 시집 『Phantom Pain Wings』에서 관찰된 번역전략을 분석하여 행동주의 번역 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번역에서 반영되고 실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번역자 자신이 번역일지에서 기술한 고민과 선택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운율 및 시적 장치의 반영을 위해 원문의 운문적 효과를 도착어로 근접

하게 구현해내는 비교 운문화 전략뿐 아니라 실험적이고 전복적인 동음 번역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 2) 김혜순의 한국어를 영어에 맞춰나가는 방식이 아닌 영어의 훼손을 감내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 3) 번역자의 정치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돈미 최가 표방하는 행동주의 번역과 연결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신식민지적 언어인 영어의 헤게모니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저항을 실천하는 “형식(mode)”으로써 번역을 수행하고자 돈미 최의 철학이 번역의 실질적 수행과 선택에 직접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번역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은 본인의 시 못 지않게 과감하고 실험적이며, 일관성보다는 분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행동주의 번역의 이데올로기가 과감한 실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낳는 동시에 원문의 미학과 부딪혀 파격과 훼손을 동반하기도 한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거침없이 관습을 깨고, 낯설고 위태로운 실험을 수행하고, 성취와 실패를 이어가며, 변화하고 행동하는 번역가의 모습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주목받는 한국 시 번역자의 철학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시 번역 방법론을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앞으로 번역가의 철학과 실천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ST

김혜순. (2019). *날개환상통*. 문학과지성사.

TT

Kim, Hyesoon. (2023). *Phantom pain wings* (D. Choi, Trans.). New Direc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2차 자료>

- 구인모. (2018). 김억의 알베르 사맹 시 번역을 다시 읽는다. *동악어문학*, 75, 99-138.
- 구인모. (2020). 김억의 폴 포르 시 번역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63, 143-181.
- 권성훈. (2022). K-poet의 미적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비평문학*, 86, 29-51.
- 김옥동. (2010). 근대의 세 번역가. 소명출판.
- 김은형. (2022. 9. 25.). K 문학관 BTS 김혜순·최돈미 짝꿍, 시를 이야기하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60028.html>
- 김혜순. (2002).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 노진서. (2007a). 한-영 시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번역 문제 — 사랑에 관한 개념적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9(1), 31-53.
- 노진서. (2007b). 한-영 시에 활용된 문화소의 번역 전략. *이중언어학*, 35, 127-146.
- 노진서. (2008). 한-영 시 번역 텍스트에 활용된 의성어·의태어 번역 전략. *통역과 번역*, 10(1), 41-63.
- 박영란. (2022). 서정주의 시 번역의 비교분석: 시의 리듬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20(1), 83-101.
- 신상범. (2020). 미학적 가치를 고려한 시 번역 연구 — 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4), 211-231.
- 신상범. (2021). 시적효과를 고려한 시 번역 연구 —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9(2), 101-120.
- 심선향. (2021). 『히스테리아』 영어 번역본의 감정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25(4), 125-147.
- 우형숙. (2004). 한영시 번역을 위한 언어(連語)의 의미체계 고찰. *번역학연구*, 5(2), 47-67.
- 이광호. (2019). ‘새-하기’와 작별의 리듬. 김혜순. *날개환상통* (pp. 293-312). 문학과지성사.
- 이상빈. (2022). 시의 형태적 특성과 번역. *T&I Review* 12(2), 55-78.
- 이재성. (2022). 번역가능성과 미적 효과의 번역에 대한 연구: 운동주 시 번

- 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0(2), 121-142.
- 정명교. (2013). 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비교한국학*, 21(2), 11-37.
- 정은귀. (2009). 시 번역의 난제와 번역의 공간. *안과밖*, 26, 425-456.
- 정은귀. (2021). “유연한 갈망”으로 부서지는 언어. *국제한인문학연구*, 30, 37-65.
- 정하연. (2020). 시가 만드는 형상: 디킨슨 시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번역학연구*, 21(3), 235-261.
- 정하연. (2023). 김정환 시 번역의 도전과 성취: 『세이머스 히니 전집』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439-464.
- 조재룡. (2014). 김남주 번역의 양상과 특성에 대한 연구 - 번역을 통한 정치성의 관철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3, 247-290.
- 조재룡. (2017). 김억 ‘번역론’의 현대성과 현재성. *동악어문학*, 71, 179-220.
- 하재연. (2014). 시 번역론에 나타난 양주동의 조선어 인식과 기능주의적 관점의 의미. *상허학보*, 41, 127-158.
- 한미애. (2020). 한-영 시 번역에서 시제와 상: 신경림 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263-284.
- 한미애, 조의연. (2020). 한용운의 시 번역 분석: 인지적 직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1), 189-214.
- 홍승연. (2019). 『래디컬 페미니즘』 번역과 출판과정을 통해 살펴본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행동가적 실천. *통역과 번역*, 21(3), 239-268.
- An, S. (2002). Literary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A study in criteria. *Translation and Literature*, 11(1), 72-87.
- Ben-Ari, N. (2021). The translator’s note revisited. In K. Kaindl, W. Kolb & D. Schlager (Eds.), *Literary translator studies* (pp. 157-18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enjamin, W. (2008).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최성만 번역). 도서출판 길.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 Berman, A. (2009).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F. Massardier-Kenney, Trans.). Kent Stat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Choi, D. (2008). Translator's introduction. In H. Kim, *Mommy must be a fountain of feathers* (pp. 3-11). Action Books.
- Choi, D. (2012). *A conversation with Don Mee Choi*. Lantern Review blog: Asian American poetry unbound <https://www.lanternreview.com/blog/2012/12/05/a-conversation-with-don-mee-choi/>
- Choi, D. (2014). *Freely frayed, ≠=q, & race=nation*. Wave Books.
- Choi, D. (2016). Translator's note. In H. Kim, *Poor love machine* (pp. 71-76). Action Books.
- Choi, D. (2017). Translator's note. In H. Kim, *Autobiography of death* (pp. 106-109). New Directions Books.
- Choi, D. (2020). *Translation is a mode = translation is an anti-neocolonial mode*. Ugly Duckling Presse.
- Choi, D. (2023). Translator's diary. In H. Kim, *Phantom pain wings* (pp. 170-179). New Directions Books.
- Collins, P. H. (2013). *On intellectual activism*. Temple University Press.
- Columbia University (2023, October 4). *From DMZ Colony to Phantom Pain Wings: An evening with Kim Hyesoon and Don Mee Choi*. [Video attached].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cwN0ShCUwc>.
- Duraner, J. E. (2021). Translate to resist: An analysis on the role of activist translation/translators in the LGBTI+ movement in Turke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16(2), 291-315.
- Eberharter, M. (2021). Translator biographies as a contribution to translator studies. In K. Kaindl, W. Kolb & D. Schlager (Eds.), *Literary translator studies* (pp. 73-88).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ulton, B. (2015). Review: *Sorrowtoothpaste Mirrorcream* by Kim Hyesoon and Don Mee Choi.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34(2), 456-458.
- Galasso, R. (2023). Introduction. In R. Galasso (Ed.) *This is a classic: Translators on making writers global* (pp. 1-23). Bloomsbury Academic.
- Galvin, R. (2023). What is activist translation? *MLN*, 138(5), 1565-1571.

- Goransson, J. (2016). Transgressive circulation: Lawrence Venuti, Kim Hyesoon, Don Mee Choi, and the poetics of translations. *Denver Quarterly*, 50(4), 44-50.
- Grotjohn, R. (2019). Translating resistance: Don Mee Choi, Jiyeon Lee, Eunsong Kim and othe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5(3), 455-75.
- Kaindl, K. (2021). (Literary) translator studies: Shaping the field. In K. Kaindl, W. Kolb & D. Schlager (Eds.), *Literary translator studies* (pp. 1-38).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iaer, J. (2022). Introduction. In J. Kiaer, A. Yates-Lu & M. Mandersloot (Eds.), *On translating modern Korean poetry* (pp. 1-17). Routledge.
- Kim, D. Y. (2022). Hardly emotion: The minor feelings of US empire and the translational poetics of Don Mee Choi. *American Quarterly*, 74(3), 665-688
- McSweeney, J. (2015). *The necropastoral: Poetry, media, occult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lath, S. (2004). *Ariel: The restored edition*. Faber & Faber.
- Raffel, B. (1988). *The art of translating poetr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icoeur, P. (2006). 번역론 (윤성우, 이향, 공역). 철학과 현실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hieh, S. (2023). DMZ Colony and the totalitarian translator. *The American Poetry Review*, 52(3), 7-11.
- Underhill, J. W. (2016). *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 University of Ottawa Press.
- Williams, R. (2010). 'Female poet' as revolutionary grotesque: Feminist transgression in the poetry of Ch'oe Sŭng-ja, Kim Hyesoon, and Yi Yŏn-ju.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29(2), 395-415.
- You, M. (2015). *Sorrowtoothpaste Mirrorcream* by Kim Hyesoon. *Bookforum*, 22(3), 43-44.

Language of resistance: Don Mee Choi's activist translation in *Phantom Pain Wings*

Ha-yun Jung (junghayun@ewha.ac.kr)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Korean-American poet and translator Don Mee Choi as an “anti-neocolonial” activist translator and analyzes the specific choices she makes in her poetry translation. Choi’s perspective was shaped through her experience as an immigrant who acquired English in British Hong Kong and eventually settled in the US, a nation whose presence in her homeland Korea she views as neocolonial. This worldview is explored directly in Choi’s own political poetry, comprising an experimental collage of texts and visual images, prose and verse, English and the Korean writing system Hangŭl. This paper carries out a detailed analysis of Choi’s 2023 translation of Kim Hyesoon’s collection “Nalgae hwansang t’ong” (*Phantom Pain Wings*), examining Choi’s strategies that aim at conveying lyrical effects in her translation; at “corrupting” English in order to transfer and highlight Kim’s choices made in the Korean language; and at emphasizing her political interpretations of Kim’s poetry. These strategies demonstrate that Choi’s political perspective as an activist translator is intricately linked with the craft she employs in poetry translation.

Keywords: Activist translation; poetry translation; Korean-English translation; Don Mee Choi; Kim Hyesoon

키워드: 행동주의 번역, 시 번역, 한영 번역, 돈미 최, 김혜순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junghayun@ewha.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